

과지단백증이 없이 발생한 늑골의 황색종

— 1예 보고 —

이승진* · 백강석* · 이석열* · 이철세* · 조현득**

Xanthoma of the Rib without Hyperlipoproteinemia

— A case report —

Seong Jin Lee, M.D.*, Kang-Seok Baek, M.D.*, Seock-Yeol Lee, M.D.*, Chol-Sae Lee, M.D.*, Hyun Deuk Cho, M.D.**

Primary xanthoma of the bone is a rare benign neoplasm, and it is extremely rare to find this in the ribs. It is most commonly reported in soft tissue and it associated with hyperlipoproteinemia. A 54-years-old male who complained of left chest pain had an X-ray taken. It revealed a left 3rd rib tumor. The blood examinations for lipid and protein were normal. A resection was done for tissue examination. The mass was histopathologically diagnosed as a xanthoma.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10;43:232-234)

- Key words:**
1. Chest wall
 2. Thorax neoplasm
 3. Xanthoma

증례

54세 남자환자로 내원 1달 전부터 발생한 좌측 흉통으로 본원 심장내과 방문하였고, 시행한 X선 사진상 늑골종양 의심되어 본과로 전과 되었다. 외상에 대한 기억은 불분명 하였다. 종양은 외부에서 만져지지 않았고, 좌측 3번째 늑골주변으로 압통이 있었다. 전산화 단층촬영상 좌측 3번째 늑골에 피질은 침범되지 않은 부드러운 경계선을 가지는 양성으로 보이는 종양이 있었다(Fig. 1). 혈액검사에선 지질, 단백질은 모두 정상범위였다. 통증이 동반된 늑골종양으로 조직검사 위해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신마취하에 횡위로 절제술을 시행 하였다. 종양은 늑골의 흉막쪽으로 융기되어 있었고, 크기는 1.5×1 cm의 타원형으로 단단하였다. 주변 조직과의 유착은 없었다. 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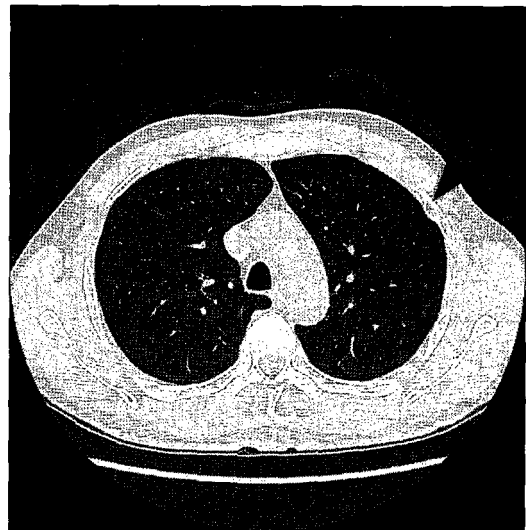


Fig. 1. Chest CT shows a left 3rd rib tumor (arrow head).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흉부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Cheona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병리학교실

Department of Pathology, Cheona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14일, 논문수정일 : 2009년 11월 4일, 심사통과일 : 2009년 11월 12일

책임저자 : 이승진 (330-712)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Tel) 041-570-2190, (Fax) 041-575-9674, E-mail: pcvslee@schch.co.kr

본 논문의 저작권 및 전자매체의 지적소유권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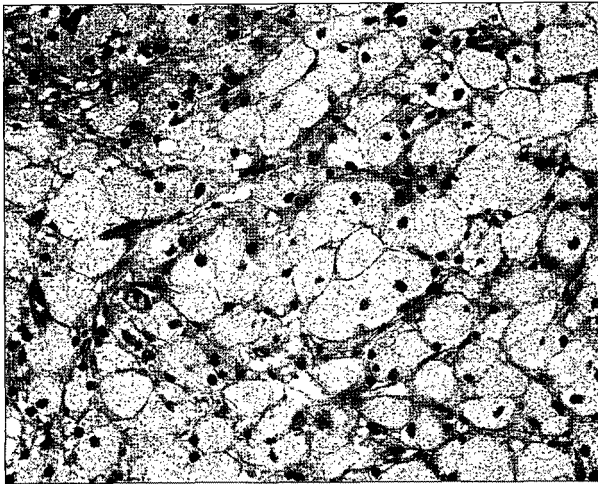


Fig. 2. Microscopy shows compact collection of benign foamy histiocytes with bubbly cytoplasm (H&E, x400).

골부분만 종양을 포함하여 3 cm가량 절제하였다. 병리조직검사상 종양은 거품세포(foam cells)의 증식(proliferation)이 있었고, 그 경계는 명확했으며, 세포핵의 이상소견 없는 황색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 또, 주변 늑골과의 절제 경계면은 정상조직이었다. 수술 후 흉통은 사라졌으며 수술 5일째 퇴원하였다. 수술 5개월 뒤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추적 검사하였고,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기적인 추적검사 예정이다.

고 찰

황색종은 주로 고지단백증이 있는 환자에서 연조직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황색종이 뼈에 발생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nonossifying fibroma, fibrous dysplasia, aneurysmal bone cyst, a benign fibrous histiocytoma 같은 양성종양의 임상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황색종이 늑골을 침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문헌상 8예만을 찾을 수 있었고[1-4], 국내에선 보고된 바가 없다. 발생기전은 과지단백증이 있는 경우 지질 침전물(lipid deposit)이 뼈 속에 침투하여 쌓이면서 뼈의 섬유주와 피질

을 대체해 나간다는 것이다. 과지단백증이 없이 발생하는 황색종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외상에 의해 뼈의 수질내 출혈(intramedullary hemorrhage)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병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5]. 본 증례의 경우 외상의 기억은 불분명하나 환자의 직업상 술에 취하는 일이 많아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

뼈에 발생하는 황색종은 20~50대 남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6]. 지질이상이 동반된 황색종은 병변이 다발성으로 하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종종 피하조직의 황색종을 동반한다. 반면에 지질이상이 없이 뼈에 발생한 황색종의 경우는 단일 병변으로 나타난다. 진단은 조직검사상 세포핵의 이상이 없는 거품세포의 증식으로 확진되며, 치료는 지질이상이 동반된 경우는 내과적 치료로 충분하고, 지질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늑골의 양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악성종양을 배제하기 위한 절제술을 시행한다[7]. 병변의 불완전 절제시 방사선 치료로 재발을 예방하기도 한다.

참 고 문 헌

- Bertoni F, Unni KK, McLeod RA, Sim FH. Xanthoma of bone. *Am J Clin Pathol* 1988;90:377-84.
- Lee JY, Pozderac RV, Domanowski A, et al. Benign histiocytoma (xanthoma) of the rib. *Clin Nucl Med* 1986;11:769-70.
- Blanco M, Cabello-Inchausti B, Cura M, et al. Post-traumatic fibro-osseous lesion of the ribs and scapula (sclerosing xanthofibroma). *Ann Diagn Pathol* 2001;5:343-9.
- McDermott MB, Kyriakos M, Flanagan FL. Posttraumatic fibro-osseous lesion of rib. *Hum Pathol* 1999;30:770-80.
- Parker F. Normocholesterolemic xanthomatosis. *Arch Dermatol* 1986;122:1253-7.
- Mariano M, Puche Torres M, Miragall A. Primary mandibular bone xanthoma. *Int J Oral Maxillofac Surg* 2004;33:806-7.
- Salvatore I, Einhorn A, Vigorita VJ. Intraosseous xanthoma associated with hyperlipoproteinemia. *Clin Orthopaedics* 1984;187:218-22.

=국문 초록=

뼈에서 발생한 일차성 황색종은 흔치 않은 양성 종양이며, 특히 늑골에서의 황색종은 상당히 드물다. 대부분 연조직에서 발생하며 고지단백증과 관련이 있다. 54세 남자환자로 좌측 흉통으로 시행한 x-ray상 좌측 3번째 늑골종양이 확인 되었다. 혈액검사상 지질, 단백질 모두 정상이었다. 조직검사 위해 절제술을 시행 하였고, 병리소견상 황색종으로 진단되었다.

중심 단어 : 1. 흉벽
2. 흉벽종양
3. 황색종